

<http://dx.doi.org/10.17703/JCCT.2015.1.1.27>

JCCT 2015-2-3

## 정보기술과 현대시와의 융합에서 추출한 ‘소통과 유희’

### An Extracted Communication and Amusement from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dern Poet

최성열\*

Sunyoul Choi\*

#### 요 약

필자는 인문학과 과학의 교차점을 찾아 중첩하는 에너지를 현대시에 관찰시키고 융합적 에너지를 도출하여 감히 인간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조그만 일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대적 감각을 가진 현대시로써 정보기술과 결탁하고 인간관계의 상관성에 합당한 ‘소통과 유희’를 누리하고자 한다. 이 말은 곧 즐거운 인생을 살자는 의미다. 특히 유희란 바람직한 인간상을 위시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이라고 여긴다. 여기에는 조건적 매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이다. 이 두 가지가 선한 양심적 인간성의 특질에서 기인한다면 필자가 주창한 인문학적 영역인 ‘정보기술과 현대시와의 만남’에서 결국 ‘소통과 유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요어 :** 융합, 현대시, 자유, 행복, 소통, 유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ry to enrich human life by applying the convergence energy of humanities and science to modern poetry.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as modern poetry with modernist aesthetics, must indulge people’s lives, which is simply to live happy lives. Entertainment is especially crucial because it is a method through which people can lead humane and satisfactory lives. The prerequisites for achieving this are true liberty and happiness. If these two prerequisites derive from humanity’s consciousness,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can be born from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dern poetry,” as the author insisted.

**Key Words :** Convergence, Modern poetry, Liberty, Happiness, Communication, Entertainment

## 1. 서 론

필자는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부딪히는 ‘어떠한 상관성에 대한 융합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현

대를 관통하고 보다 질 높은 지적인 쾌감을 인간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고에 착수하였다. 특별히 인문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Poet)’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 유희를

\*정회원, 전북대학교 철학과(교신저자)

접수일자: 2014년 8월 18일, 수정완료일자: 2014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월 20일

Received: 18 August 2014 / Revised: 20 December 2014

Accepted: 20 Jan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paulci@daum.net

Dept.: Philosophy Dept. of Chonbuk Univ.

안기고자 한다. 이런 유희적 삶에 인간의 질적인 삶을 현대사회가 주창하는 혁신, 창의를 근간으로 하는 융합(Convergence)에 발맞추어 현대시(Modern Poet)를 통해서 ‘인문학과 철학의 상관’이라는 소주제로 시너지효과(Synthese)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및 방법

본고의 논지는 소통과 유희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유와 행복을 먼저 설명한 다음 이 논지를 근거로 하여 융합이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요청되는 지복에 대해서 논하겠다. 다음으로 인간성의 간극(間隙), 행복과 자유에 대해서, 인문학적 시와 철학의 만남을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결론적으로 ‘현대시’가 융합사회에서 추출되는 이점을 통해서 ‘소통과 유희’로 마무리하겠다.

## II. 본 문

본문에서는 융합사회에서 요청되는 항목들을 자유와 행복 두 가지로 구분 짓고자 한다. 또한 정보기술사회가 양산한 도구를 사용하여 현대시 한 편을 살펴보고 그것이 주는 유익을 소통과 유희의 장에 접목시켜 인간다운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1. 융합사회에서 요청되는 소통과 유희

인류 시초에서 자연과학으로 연결될 때까지 해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일로 생각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계발(啓發)과 산업혁명, 자본주의의 발흥과 패권적인 국가권력이 더욱 강성해진 근세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문제와 국가관의 자유와 행복까지 더불어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는 과학기술의 정체(停滯) 없는 발달로 정보기술까지 연계하여 개인적 삶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 과학기술은 후에도 언급하겠지만 광범위하게 인문학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이 일궈낸 문명과 문화에서 독

특성과 장점만을 추출하여 더욱 섬세하고 웅장한 문화기술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소통의 힘을 실어 준 것이 과학적 기술이다. 이에서 융합이라는 말의 기초를 꾀했고 보다 발전적 분야를 형성했다.

이에 인간은 기술 뿐 아니라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필자는 ‘소통과 유희’를 자유와 행복에 연결하여 아름다운 인간성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하자면 행복한 삶이란 ‘대화와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인간은 지구상에서 공존하며 살고 있으며 누구든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통과 유희를 위해서 먼저 융합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홍성옥은 “잡다한 르네상스 맨을 만들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곧 인문학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간에 그 분야에 관련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띤다”고 하였다.\*\* 홍성옥은 덧붙이기를 “융합이 과학적 기술에서는 많은 연구가 생산되었으나 인문학과 연결고리는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필자도 이 말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세대에 SNS가 주는 효과는 보다 융합의 극대화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네트워크라는 기술과 인문학과 만남의 장이기 때문이다. 곧 인간이 생산한 과학기술의 분야뿐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그 가치를 연결하여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홍성옥은 그의 다른 책에서 과학과 언어라는 한 장을 마련하여 ‘과학 활동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과학에서 언어에 주목하는 것은 문화로서의 과학의 풍부한 의미 영역에 접근하는 하나의 열쇠다”라고 한 보노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융합 인지과학의 개념으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정모는 융합의 인지과학을 ‘인간 사회와 동물, 인공물의 신경직, 지적, 신체적, 사회적 모두를 탐구주제로 삼

\* 필자는 융합이라는 말은 인문학의 기본에서 출발한 각 분야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꾀한 참신함과 혁신, 창의성이라고 생각한다.

\*\* 홍성옥 외, 『융합이란 무엇인가』 (서울: 강남출판문화센터, 2012), p. 12.

\*\*\* Ibid., p.34.

\*\*\*\* 좋은 예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문학과 기술의 만남이다. 곧 메켄토시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생산한 점이다.

\*\*\*\*\* James J. bono, “Science, Discourse and Literature,” pp. 59-89를 홍성옥,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p. 129를 재인용하였다.

는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 말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와 인문학적 무대를 융합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한 바이다.

이처럼 융합이란 단어가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18세기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헤겔은 사물의 이치나 인간의 정신적 세계를 정반함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객관적인 틀에 반대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것이 융합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기대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융합은 '통섭'이라는 말로 통용하기도 한다. 이는 곧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연결고리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에 궁극적인 교집합의 관계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창의성(Creativity)와 혁신성(Innov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굳이 현대시의 참신함을 덧입혀서 융합사회가 요구하는 세태에 '소통과 유희'를 이입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견을 펼하고자 한다.

## 2. 지복(至福, *summum bonum*\*\*)에 대해서

인간은 유사(有史) 이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현대까지 지복(至福, *summum bonum*)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渴望)을 품어왔다. 곧 인간 삶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결과를 거듭해 왔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그 인간 삶의 질에 대한 연구와 과정, 결과는 곧 자연과학을 포함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그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시는 그 가운데 한 분야로써 인간 삶에 풍요를 제공한 인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질적인 지복에 대한 인간적(*humilitas*)인 요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지복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인터넷 구축망을 통한 문화적 교류 때문이다. 이에 현대시에 대한 유희와 활용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것이 곧 현대 사회가 가장 절대시하는 요구로 창출된 컴퓨터통신망(인터넷네트워크)이라는 시스템이다. 이 사이버상에서 네트워크로 '소통과 유희'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세태

다. 그럼에도 현대사회는 인문학의 배고픔이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을 정립할 수 있는 존재(存在)와 형이상(形而上)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대사회는 날마다 엄청난 정보기술이 쏟아지고 융합된 사회적 유물을 산출되고 있다. 물론 이것들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은 완전히 정돈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떻게든 과학기술과 인문과 철학과 미술, 음악, 더 나아가 종교에까지 융합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인문학적 행복에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사회는 소규모의 자본으로 광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간은 각종 자유를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행복을 창출하기에 혈안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다양각색으로 문화를 즐기고 운동과 각종 놀이를 통해서 질적인 삶을 향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현대시가 네트워크 상에서 소통을 이루고 인간 상호간에 유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 3. 시를 통한 인간 성질(性質)의 고저(高低) 측면에서의 간극(間隙)

시(현대시)가 융합사회에서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애로점이 없지 않은 것은 직접적 대화의 장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다. 이것을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총체적인 인간 생활에 기술을 주입하고 개발하여 인간 삶에 융합된 풍요함을 배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문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실존적 삶의 태도가 풍요한 만큼 인간의 성격의 질은 어떠냐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복의 잣대를 마냥 높이며 살 수 있다는 데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인간의 질, 곧 인간성의 실태를 그대로 간과할 수만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범죄의 수법이 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담대해지고 있으며 죄성이 극대화되고 있고 있다. 인문학적 기술과 문화적 상황이 계발되는 분야가 수없이 많고 인간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면에 도달하는 죄를 억제하는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남는다.

\* 김광수 외, 『융합 인지과학의 프런티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p. 20.

\*\* 라틴어는 기울임체로 사용하겠다.

인간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자기 안에 잠재의식과 능력이 내재해 있다. 인간은 그것을 일일이 다 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과 악의 간격에서 둘의 공존성에 이입되는 상황적 판단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기와의 투쟁적 토대에서 이겨낼 수 없는 무능력과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자기 소유와 절제’를 의식적으로 균형 잡힌 양심의 도덕을 세워갈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초월하는 자는 성인이자 현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계산적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땅에 설립하고자 하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유사 이래로 끊임없는 전쟁과 권력에 대한 사욕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달해 보자고하는 여유와 자유에 대한 실현은 현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이런 선악의 막간(幕間)에 여유를 가지고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 자연과학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구어 낸 인지과학이 또한 첨단기술과 합체하였던 것이다. 이를 기술적 분야에 적정하게 중점적 역할을 한 융합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재적 욕심의 근간에 불박이 역할을 한 선악의 가능태\*를 현실태에 온전하게 적용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필자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두 가지 선별적인 이탈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두 가지 현상 속에서 시(현대시)가 주지하는 바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원활한 소통이나 유희는 정립될 수 없다고 본다. 이 둘의 간격을 잠깐 설명한다. 첫째는 선이라는 것이 자신 안에서 주관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다. 물론 참된 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선을 오용한 자만(自慢)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이 결코 양심에는 부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선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는 선과 악의 간격에서 늘 대립적인 관계에 설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

다. 둘째는 소비재(消費財)\*\*의 입장에서 생산재(生産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권력남용(濫用)을 통해서 내적인 심력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양심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생산재와 소비재의 원리를 불균형의 자리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되어진다. 소비재의 선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생산재의 비유에 맞춰 자기의 욕망을 산출하였던 것이다. 곧 인간이 지닌 욕망이 선악의 분별에서 이탈되어 질 높은 융합의 기회를 맞이하더라도 소비하는 측면에서 욕심이 과하게 되면 언제나 융합의 본래 목적에서 간극(間隙)은 초래하고 말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은 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틀을 깨버리지 않고 더 질 좋은 욕망을 위한 생산재(生産財)로 말미암은 재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노동 능력을 거머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욕심에서 기인한 소비재의 동인(動因)이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졸속한 성질을 끄집어내며 무던히도 선한 의지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융합사회가 일구어 놓은 텃밭 안에서 인문학적 희망이 시(현대시)를 통해서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 4.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 4-1. 자유

필자는 융합사회가 주도적으로 도출하는 인간 삶의 질을 향한 도약에서 ‘소통과 유희’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에 한편의 시작(Composition of Poems)을 통해서 독자들과의 만남의 행복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도 물론 같이 다루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특별히 필자는 자유에 대해서는 근현대를 아우르는 영국의 공리주의자 스튜어트 밀과 근대 종교개혁을 꾀한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비교하면서 다루고자 한다.

인간의 삶 가운데 자유와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

\*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명제로 현실에 드러난 것의 이면에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한 개념이다.

\*\* 인간이 재화를 통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현상인 경제적 개념이다.

다. 스튜어트 밀은 “행복에 대해서 자유와 연관하여 사회적 연대 책임과 개인의 행복이 긴밀한 역학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창하였다. 150년 전에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길목에 주춧돌을 세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과 다수자의 행복의 조화를 그 내용으로 하여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가 말한 ‘진정한 자유’를 한 마디로 표현할 수 힘들지만 그가 주장하는 자유는 행복과 함께 긴밀하게 관계되고 인간 존중의 측면과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부강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잣대를 규정해 보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통해 인간이 우주 안에서 한 개체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몽시켜 주었다. 즉 자유로 말미암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과 자유에 대한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 확장했다. 따라서 그가 추구했던 자유의 맥락에서 볼 때 공리주의, 자본주의 내용은 시대마다 요청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위와 같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행동이 ‘자유’와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치였다. 필자는 스튜어트가 말한 자유는 융합사회가 요구하는 이치에 맞는 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종교적 입장을 넘어서 개신교가 추구하는 성경적 자유는 무엇인가를 표명하였다. 성서에서는 자유란 진리 안에서 자유를 표방한다.\*\* 루터가 말하는 자유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규명한 진정한 자유를 뜻한다.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들어오고 그의 리더십에서 결실된 ‘섬김의 자유’를 말한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았지만 그는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만물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곧 왕된 위치에서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패권주의(Hegemony)와 계급사회(Hierarchy)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가진 역량을 겸손하게 내어 놓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죽음으로 대변한 인류에의 대속의 공로는 가히 세상에서도 비등할 수 없는 사랑의 성취였다. 마르틴 루터는 이를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왕된 자유와 종된 덕장으로 서의 자유를 누릴 것을 말했다.

#### 4-2. 행복

소크라테스는 행복이라는 말을 이성적이며 합리적 논제를 사용하여 실천적 과제로 선향(先嚮)하였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보다 한 차원 너머에 있는 이데아적 사상을 펼쳤다. 그는 진정한 행복 추구에로의 길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더했던 것이다. 곧 영혼 속에서의 질서 있는 대화로써 이성은 덕이며 이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겼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원리를 더욱 확대하고 이데아적 형이상학은 변증법적 원리를 적용하여 실체(usia)였다. 그는 행복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며 도덕으로 발산하고 실천하여 참 행복에의 추구였다. 그는 이를 통해서 이성과 비합리적 요소에 담긴 난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현대시가 요청하는 ‘소통과 유희’에 대해서 장황(張皇)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혁신과 창의를 통해서 융합사회가 산출하는 방향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유와 행복은 현대시가 더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적 재미를 줄 수 있다는 데는 적극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대한 이론은 ‘개인의 의지를 살리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어떤 규범을 넘어설 수 없는 제한적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한층 덧붙인 종교적인 사랑의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마르틴 루터의 자유는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자유의 틀을 간단하게 집어서 말할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는 자유와 행복이 토대가 된 인간이 융합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소통과 유희를 향한 밑거름이 된다

\* 스튜어트 밀, 『자유론』, 김형철 역, (서울: 서광사, 2008).

\*\*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소크라테스는 덕을 바탕으로 지행합일적인 윤리아말로 최고(最高)선으로 간주하였다.

고 여긴다.

##### 5. 인문학과 현대시의 상관성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키케로는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말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 활동의 전반적인 철학, 역사, 과학, 음악, 미술 등등 그 분야를 섭렵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 전반의 삶에 어리는 문제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나누는 것을 인문학으로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다. 곧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사상과 존재 의식, 또 상대에 대한 관계 문제와 삶의 처세에 대한 지혜를 아울러서 말할 수 있다.

고대 철학자들의 철학적 사유와 인간 궁극적 존재 발견의 주제는 ‘부끄러움’이라고 했다. 그 부끄러움은 물론 인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함이었다. 이처럼 인간이 현실에 부딪히는 명예, 권력, 등이 부끄러움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 ‘부끄러움’은 거기에 귀속되어 참다운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키케로는 인문학을 말하면서 젊은이에는 ‘삶에 대한 재미’를 부여해 주고 늙은이에게는 ‘행복과 여유’를 안겨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융합사회가 요구하는 현대시가 주는 묘미는 인생으로 하여금 주위를 환기시키고 시구(詩句)들에 변환장치(Paradigm Shift)를 걸어 독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안길 수 있다.\*

인문학은 인생의 철학적 사유와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통해서 때로 음악으로, 때로는 그림으로, 그리고 시로 표출되기도 한다. 특별히 필자가 위와 같은 인문학 분야에서 빌리려고 하는 바는 시(詩)다. 시는 음운이 있는 노래로 인간의 감성이미지는 글로 표현한 것이다. 필자의 식견으로 시란 어떤 사람의 사상을 세상적 수면 위로 인출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인간다운 삶의 영역에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다. 곧 현대시가 시적 요건을 잘 갖추어 융합된 사회에 글과 기계적 도구나 사회적 네트워크(SNS)로 소통할 때 그 효과

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6. 시와 철학의 만남

인문학 측면에서 시와 철학은 한통속이다. 필자는 이들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창출해 낸 네트워크 구성과 결합된 통섭이라는 융합사회가 요구하는 현대시를 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인간과의 상관성과 그에 적합한 소통과 창조적 유희를 통해 자유와 행복을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연유로 융합이라는 말로 시와 철학을 정의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창의성을 통해 현실적인 삶의 질과 인생의 보다 만족스런 장을 만들자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소주제로 철학과 시의 만남을 간략하게 설명하게 현대 시인의 대표주자인 시인 ‘고은’의 시 한편과 필자의 평을 통해서 시를 감상하고 본 논문을 정리하겠다.

##### 6-1. 시란

시란 무엇인가? 필자는 시란 철학이며 하나의 노래이면서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이며 철학이며 치료약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필자가 ‘시가 무엇인가’를 20개의 주제로 풀이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바이다. 물론 시(詩)는 더 확대된 영역으로 볼 때 무궁무진한 설명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분야이다. 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정도 서론적 설명으로 시적 기교, 언어 패러다임, 언어의 예술로 설명하겠다.

##### \*시적 기교(技巧)

시는 여러 기술적인 문법과 다양한 시의 장르로도 구분되지만 특히 시가 요청하는 것은 주제의 의미, 음운의 기교 등을 말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를 축약하고 기술적인 언어 사용으로 더 멋진 시를 창작할 수 있다. 시란 특히 시적 형식 논리 구조에서 볼 때 ‘비확장적 언어’와 ‘확장적 언어,’ ‘비모순의 논리’와 ‘확장된 직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시적 문학으로써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인이 의도하는 바를 깊게 이해할 필요

\* 통상적으로 패러다임 쉬프트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라는 말로 쓰인다. 필자는 시적 변환장치를 이에 사용하였다. 이는 곧 시가 요구하는 서정 뿐 아니라 모순 어법, 역설, 환기적 심성, 비유 등을 적절하게 등재할 때 그 기능성에 맞추어 나갈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서울: 강남출판문화센터, 1995), p. 34; 시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언어예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인식의 명료함을 준다.

가 있어야 시다운 맛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언어의 파괴적인 패러다임**

시는 언어적 산물이며 예술이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언어는 참으로 중요하다. 현대 언어는 소쉬르 이후 파괴적 패러다임이 있어 왔다. 그것은 모더니즘과 이것에 상응(相應)한 포스트모더니즘(건축분야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다고 전해짐)이 이입되면서 몇몇 학자들 간에 언어의 쇠신이라는 명목 하에 허무주의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곧 언어는 플라톤의 표현처럼 모두 글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인간의 뜻이 그 안에 다 기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문화이자 예술로써의 언어**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행위는 언어의 도단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끓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호흡’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말로 다 표현 못하고 글로 다 쓸 수 없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미덕과 말을 조리(條理) 있게 할 수 있다면 시적 언어가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면에 기록하여 독자와 청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시는 그야말로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최상의 문화이자 예술인 것이다.

필자는 시란 무엇인가를 어렵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언어의 파괴적 행위가 있는 현대 시대라고 할 지라도 언어의 효용성을 가지고 시작(Composition of Poems)을 하며 언어적 유희(遊藝)로 말미암아 심신의 치료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피력하는 바이다. 그러한 이유는 시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시는 문화와 더불어 종교와는 결부되며 신비적 현상에도 한 몫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시는 현대 융합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적극적인 성향을 띠는다고 판단하며 이에 현대적인 자유시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6-2. 시와 철학과의 만남(지적 쾌감Aesthetical Pleasure과 형이상학Metaphysics과의 상관성)**

시는 엄밀히 말하자면 노래이자 예술이다. 특별히 예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혀 영

똥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시를 아는 자들은 철학자들이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철학이 아니다. 다만 시와 철학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시의 풍요한 세계에 한층 다가가고자 하는 바이다. 특별히 시적 감각이 뛰어났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예로 설명하겠다. 그리고 엘리엇의 시를 잠깐 소개하겠다.

\*시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시를 시답게 쓰기란 가히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의 내용이 지적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쾌감이란 어떤 유희나 멋들어진 언어 사용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적 쾌감이란 심도 있는 인식(이성과 관념의 사이를 넘나들 수 있는 개념)이 깃들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지성을 이용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그것을 실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는 곧 형이상학이 주는 의미와 상통하는 바가 크다. 곧 형이상학은 단순히 상상속의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실체(substansia) 뒤에 있는 그 무엇을 나타낸다고 할 때 그것이 개체적으로 사회적 의미와 질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쉬운 말로 하면 형이상학이라는 어떤 개체가 있는데 그것을 보편적으로 명명한다고 하자. 그 때 어떤 것이 보편 안에 실제로 있는 것과 이미지 즉 형상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곧 형이상학은 어떤 이미지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닌 어떤 관조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와 철학의 만남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동반되어야 할 성격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들은 단순히 서정시를 넘어선 사회적 현상과 참여, 그리고 지.덕.복이 어우러져 현실과 꿈꾸는 미래가 도덕적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이는 곧 자연과 논리와 윤리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단 한 편의 시를 짓는데 어려워야 하는 이유를 든 것은 무조건 시를 쓴다고 다 멋진 시가 아니라는 말이다.

\* 김옥성, 『현대시의 신비주의와 종교적미학』 (서울: 국학자료원, 2007).

그렇다면 어떤 시가 그런 형이상학 시일까? 사실은 많은 시인들 가운데도 그런 시를 읽어도 형이상학적 시인 줄 구분을 잘 못한다. 왜냐하면 시적 체제와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S. 엘리엇의 '황무지'이다. 이 시는 매우 난해하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판이다. 그러나 생의 철학적 내용과 인생의 회한, 그리고 삶의 본질과 인간 안에 끊임 없는 투쟁을 안다면 이 시를 조금 이해할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 문제를 고발한 풍자, 인간의 연약함에서 애잔, 죽음에 대한 갈등 등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외부로 내밀어 놓고 조금이나마 희망의 광주리에 주위 담아보려는 안간힘을 쓰는 대목들이 엿보인다.

엘리엇의 '황무지' '5부 중에서 1부'의 일부분만 살펴본다.

#### 1부 죽은 자의 매장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유지했다.  
슈타른베르게르 호 너머로 소나기와 함께 갑자기 여름이 왔다.

우리는 회랑에 머물렀다가  
햇볕으로 나가 호르가르텐 공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한 시간이나 이야기 했지.  
난 러시아인이 아니예요  
리투아니아 출신 순수한 독일인이예요  
어릴적 사촌집에 머물렀을 때  
사촌이 나를 썰매에 태워 주었는데  
나는 겁이 났어요. 사촌이 소리쳤죠.  
마리! 마리! 꼭 붙들어. 그리곤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산에 선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나는 밤에는 대개 책을 읽고 겨울엔 남쪽으로 갑니다...

시는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매우 난해한 시도 있다. 아니 난해한 정도가 아니라 지적 쾌

감을 불러일으키며 문학적인 요소와 예술적 미감까지 갖춘 것이다. 실은 우리나라에도 '고은' 시인이 이런 시를 잘 쓰신다. 현대시의 정점이라고까지 불리는 엘리엇은 17세기 '사무엘 존슨'이나 '조지 허버트,'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16세기 시인 '존 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시를 쉽게만 생각하여 난해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앞서서 쉬운 시를 쓰는 시인들을 매우 존중하는 의미로 글을 개진하였다. 이번에는 격상 있는 시를 짓기 위해서는 뼈와 살이 에이는, 그리고 각고의 노력 없이는 좋은 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바이다. 특별히 시와 철학의 만남은 불가분의 관계이지 따로 국밥이 절대 아니다. 좋은 시를 쓰는 작가들은 깊은 고뇌와 현실 참여, 그리고 인생의 제반 문제를 놓고 철학을 다룬다. 형이상학적 시가 단순히 감상만 하고 끝나는 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적 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시는 그만큼 인식과 윤리, 형이상학과 수사적 문학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 철학을 논하는 것이 시이며 시는 철학의 기초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작을 하는 많은 동류들에게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시학의 기저인 인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로 말미암아 독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융합사회가 요구하는 시너지효과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 6-3. 이해와 감상(고은 -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광혜원 이월마을에서 칠현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그만 나는 영문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 숲의 빛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 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



래어 온 울음이었다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  
다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에 온 것이나 다름없  
이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  
름답다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와 깊은 하늘 속의 우듬지의 떨림  
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우쭐해서 나뭇짐 지게 무겁게  
지고 싶었다  
아니 이런 추운 곳의 적막으로 태어나는 눈엽이나  
삼거리 술집의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나는  
사나웠으므로

얼마만이나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십여 년 만에 강  
렬한 곳이다  
강렬한 이 경건성!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벽찬 가슴은 벌써 알고  
있다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낱알 중의 하나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 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남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나는 광혜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현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했다  
고은 시인의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는 현대시의 정통  
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통례적으로 시평이  
라 함은 시적 화자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그 작업은  
가히 쉬운 작업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하늘의 별을 따  
오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머물렀던 시  
대와 그 때의 상황, 그리고 시인의 시풍을 어느 정도 이  
해한다면 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설하지 못하더라도  
근처에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고은(고  
은태) 시인은 우리가 알듯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시인이며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다. 고은 시인의  
시를 감히 줄자가 해설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짧  
은 소견으로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고은 시인의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의 배경을 보면 그  
가 27년간 안성에서 살게 된 연유에서 기원함을 알 수  
있다. 그가 안성에 정착한 후 성환, 진천까지 약 5년간  
을 한없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하여튼 고은 시인의 삶  
을 돌아볼 때 그의 삶은 엄청난 문학적 특징은 자연과  
종교와 경건과 희망의 노래를 인생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를 비롯해 약 150권의 책을 출간할 정  
도였으니 감히 누가 고은 시인과 견줄 수 있으랴.

시적 화자는 인생의 회환을 '자연의 순수'에서 축출한  
경건의 의미로 본 시의 모티프(Motif)로 삼아 '희망'을  
남겼다. 주로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를 등재하여  
수사어를 자제하면서도 시적 신선감(Freshness)을 더  
하고 있다. 시인은 제재(題材)인 '자작나무 숲'을 이용  
하여 대중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곧 인생의  
회환과 성찰의 반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관조적이며 서정적이면서 사람과 자연의 이행  
대립을 통해 인생의 바른 삶을 빚어 낸 산고의 결산물  
이다.

본 시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5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연에서 타락을 모르는 '겨울  
의 자작나무' 숲에 자연스럽게 인도되면서 아주 고운  
발길에 도입을 붙여 놓았다. 2연에서 자작나무의 아름  
다운 모습으로 인해 화자 및 모든 이들이 '순결의 미'  
와 '숭고의 녀'를 지녔다는 종교적 색채를 그렸다. 3연  
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환을 강렬한 심상으로 들춰  
내었다. 또 너무나 교조(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삶을  
사는 모습)적이며 험한 세파 가운데 화자가 힘겹게 살  
았다는 것이 시의 중심에서 '회환적 어조'로 드러났음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지  
만 자작나무를 보면서 '배움의 장'으로 삼았던 것이다.  
4연에서는 화자 자신이 진정으로 삶의 버거움에서 벗  
었다는 깨달음에 어찌나 흥분되던지 그것이 곧 경건으  
로 옮겨 적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이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5연에서는 험한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에 삭풍의 칠현산 험한 산으로 서슴없이 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시는 현대문학이 추구하는 요소를 담고 있으며 난해하지 않는 문장으로 통설(通說)적인 맛이 여물어있고 읽는 이에게 ‘아하!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안겨주어 시적 미학으로써 가치가 있다.

### III. 결 론

과학은 첨단 정보기술의 장을 만들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미 100년 전에 발견한 양자역학의 시대를 넘어 핵융합 계발을 넘는 나노기술은 혁명과학시대를 이루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인류는 자연과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양분을 받은 기술의 증대로 말미암아 삶의 풍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과학은 발달하나 인문학은 주춤하는 듯 하는 이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필자는 이런 사실이 옳지 않으며 오히려 과학과 인문학은 공존하며 인문학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과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여긴다. 사실 인문학이 과학을 포함하며 그 중심적 내용은 인간의 성질과 결탁되는 상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기술(IT)을 통한 현대시가 주는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여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시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으며 현대시대가 요청하는 자유와 행복의 발광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대사에서 추출한 소통의 터전은 정보기술과 인문학의 조화를 꾀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서로 인간다운 삶에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유희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References

[1] Kim, Kwangsu et al. Frontier of Cognitive Science Convergence.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011.  
김광수 외. 『융합 인지과학의 프런티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2] Kim, Okseong. The Mysticism and Religious Aesthetics of Modern Poetry. Seoul: Kookhak, 2007.  
김옥성. 『현대시의 신비주의와 종교적미학』. 서울: 국학자료원, 2007.

[3] Kim, Youngcheol. Horizons of 21<sup>st</sup> Century Korean Poetry. Seoul: Singumunhwasa, 2008.  
김영철. 『21세기 한국시의 지평』. 서울: 신구문화사, 2008.

[4] Yoo, Jongho. What is Poetry?. Seoul: Gangnam Publication Center, 1995.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서울: 강남출판문화센터, 1995.

[5] Mill, John Stuart. Hyeongcheol Kim, trans. On Liberty. Seoul: Seokwangsa, 2008.  
스튜어트 밀. 『자유론』. 김형철 역. 서울: 서광사, 2008.

[6] Hong, Seongwook et al. What is Convergence? Seoul: Gangnam Publication Center, 2012.  
홍성욱 외. 『융합이란 무엇인가』. 서울: 강남출판문화센터, 2012.

[7] Hong, Seongwook. Science with a human face—Culture of Science in the Era of Convergen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홍성욱.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